



브렉시트가 미국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

이소양 연구원

요약

■ 최근 영국 국민투표에서 EU 탈퇴가 가결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가운데 일부 미국 보험회사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함. 이들 보험회사들의 주가하락은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과 EU 지역에서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미국 보험회사들의 영업비용 및 규제부담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반영함. 브렉시트에 따른 미국의 금리인상 지연 가능성 증대 및 국채 수익률 하락으로 자산운용 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미국 보험회사들의 투자수익률 개선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. 따라서 미국 보험회사들은 사업 관리역량 강화 및 자산운용전략 재검토 등의 조치를 통해 브렉시트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.

■ 2016년 6월 23일 영국 국민투표에서 EU 탈퇴가 가결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가운데 일부 미국 보험회사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함.

- 영국의 브렉시트(Brexit) 결정 이후 주요국 증시가 폭락하고 파운드화 및 유로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됨.
 - 6월 24일 미국 다우지수, 유로 STOXX 50 지수 및 영국 FTSE 250 지수는 각각 전일대비 3.4%, 8.6%, 7.2% 급락함.
 - 6월 24일 파운드화 및 유로화 가치는 전일대비 각각 7.3%, 2.2% 하락한 반면 미국 달러화 및 엔화 가치는 각각 전일대비 3.0%, 6.7% 상승함.
-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폭으로 6월 24일 해외시장에서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미국 보험회사인 Metlife, Prudential Financial 및 Lincoln National의 주가는 전일대비 10% 이상 급락함.
 - 7월 25일까지 상기 보험회사의 주가는 아직 브렉시트 결정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.

■ 미국 보험회사들의 주가하락은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과 EU 지역에서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미국 보험회사들의 영업비용 및 규제부담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반영함.¹⁾

1) Deloitte(2016. 6), "Brexit: What now for US insurers?".

- 영국의 브렉시트 시나리오는 EU 시장에 제한적 접근이 가능한 “제3국” 지위를 얻는 시나리오와 공식적인 투표권은 없으나 모든 EU 규정을 적용받으며 EEA²⁾의 회원으로 남는 시나리오가 있음.
- 영국이 EEA의 회원으로 남지 못할 경우 미국 보험회사들은 영국과 EU 지역에서 자회사를 각각 설립해야 하며, 이에 따른 인건비 등의 신규 비용이 발생하면서 영업비용이 크게 상승할 것임.
 - 영국이 EU 회원국 지위를 지닌 경우 영국이나 EU 지역에 기반을 둔 미국 보험회사들은 개별 국가의 보험사업면허 없이 단일 시장인 EU 보험시장에서 영업할 수 있음.
- 또한 영국이 EEA의 회원으로 남지 못할 경우 영국과 EU 지역에서 자회사마다 2016년 초부터 도입된 Solvency II 자본규제가 적용되면 규제부담이 커질 것임.

■ 브렉시트에 따른 미국의 금리인상 지연 가능성 증대 및 국채 수익률 하락으로 자산운용 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미국 보험회사의 투자수익률 개선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.

- 지난 6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사회는 통화정책회의³⁾에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초래될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기준금리 추가 인상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.
 - 그동안 월가는 7월 또는 9월에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을 전망해왔으나, 브렉시트 발표 이후 월가는 올해 금리인상이 12월 1회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- 브렉시트 결정 이후 미국 국채 수익률은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높아지면서 하락하였으며,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이러한 하락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.
- 미국 생명보험회사들은 저금리 환경에서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미 많은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추가적 수단이 거의 없기 때문에 향후 금리인상 지연 시 중대한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음.
 - 저금리 환경에서 미국 생명보험회사들은 수익성 보전을 위해 보험료 인상, 보장 범위 축소, 위험자산 투자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음.

■ 따라서 미국 보험회사들은 사업관리역량 강화 및 자산운용전략 재검토 등의 조치를 통해 브렉시트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.

- 영국과 EU 지역에서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미국 보험회사들은 브렉시트에 따른 영업비용 및 규제 부담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관리역량 강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.
- 미국 보험회사들은 금리인상을 전제로 하는 자산운용전략을 수립하였으나 브렉시트로 인한 금리인상의 지연으로 자산운용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. [kiri](#)

2) EEA(European Economic Area, 유럽경제지역)는 유럽의 유럽연합(EU) 15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(EFTA) 4개국으로 구성된 단일 시장을 말함.

3) 이번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회의는 6월 14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었고, 회의 시점은 브렉시트 결정이 이뤄진 23일보다 앞섬.